

## 유아의 기질, 행동억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에 미치는 영향\*

장윤희<sup>1)</sup> 문혁준<sup>2)</sup>

---

### 요약

---

본 연구는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을 주요 변인으로 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만 5세 유아와 어머니 202쌍을 대상으로 과제 재도전 반응 검사를 실시하고, 유아의 기질, 행동억제 및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 차이 및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 검정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유아의 성별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능력귀인이 더 높게 나타났고, 취업모보다 전업 어머니를 둔 유아의 실패 이후 도전 지향적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유아가 가진 일부 기질과 행동억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도전 지향적 혹은 도전 회피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고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실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한계설정 양육을 통해 유아의 도전과 동기 발달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 서비스로서의 검사체계 마련과 놀이를 촉진하는 다양한 부모참여 프로그램 등의 정책을 제안한다.

**주제어:** 기질, 행동억제, 양육행동, 과제 재도전 반응

---

## I. 서론

아이들은 누구나 성장하고자 하는 내적 힘을 가지고 있다. 내적인 힘은 「유아·놀이 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배움이 있는 놀이를 위해 유아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정상적인 성장 과정은 수많

---

\* 본 논문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유아의 기질, 행동억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에 미치는 영향(2020)」을 요약 및 수정·보완한 것임.

1) 가톨릭대학교 강사

2)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은 시련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걸음마나 말을 배우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Seligman, 2008). 그러나 실패나 좌절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모든 유아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반응은 아니며, 포기하거나 회피하기도 하는 등 도전적인 상황에 대한 유아의 개별적인 차이와 주변 특성에 따라 다양한 대응방식을 보인다. 3세 이후가 되면 과제에 대한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 보다 독립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성취했을 때는 자부심을 느끼지만 실패했을 때는 수치심을 느끼며 회피하기도 하는데(Lewis & Ramsay, 2002), 유아기 성취나 실패 경험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후 발달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김아영, 2010; Cain & Dweck, 1995). 유아들에게 나타난 도전에 대한 회피적 반응은 5년 후에도 무력감을 예측하는 결과로 작용했으며(Ziegert, Kistner, Castro et al., 2001), 유아들의 초기 무력감은 5년 후 이들의 자기 가치에 대한 부정적 감정 및 우울증 증상을 예측하는 위험요소로 밝혀졌다(Kistner, Ziegert, Castro et al., 2001). 이는 유아기에 나타나는 도전이나 회피적 반응이 학령기 이후에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인간의 내재동기는 개인의 의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 등을 통해 실패한 과제에 대하여 재도전을 선택하도록 이끄는 내적 힘을 설명하는데(장유진, 2016; Stipek, Recchia, McClintic et al., 1992), 유아기에는 이러한 내적 동기를 통해 놀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율성과 주도성이 발현되는 시기이므로, 실패를 경험한 유아가 새로운 도전이나 과제 앞에서 보이는 반응을 분석하고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들을 밝힌다면, 초기에 적절하게 개입하여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실패 후 도전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반응과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 내적 요인으로 기질, 정서, 과제 및 능력 지속성, 과제 수행 효능감, 우울 및 부정적 자아 가치를 다루었으며, 환경적 요인으로 어머니 불안, 심리적 통제, 성취관심, 상호작용 및 양육행동, 성인의 피드백 유형 등이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길태영, 2017; 김유정·안선희, 2014; 장소진, 2013; 장유진, 2016; 조혜림, 2016; Cole, Warren, Dallaire et al., 2007; Kamins & Dweck, 1999; Kistner, Ziegert, Castro et al., 2001; Smiley & Dweck, 1994).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그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유아의 성별은 동기 관련 일부 연구(Meece, Glienke, & Burg, 2006; Rodríguez, Regueiro, Piñeiro et al., 2020)에서 차이가 밝혀진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므로 과제 재도전 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만 5세 유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은 상호작용의 기회를 낮춤으로써 학업이나 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이미리·신유림, 2013; Boca, Pasqua, & Suardi, 2015),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교육과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대가 증가되는 시기이므로

취업 어머니의 어려움을 더하는 시기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별과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과제 재도전 반응의 차이를 살펴보고, 다양한 변인들이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회피적 반응을 야기하는 초기 무력감의 출현에 대해 생물학적인 기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Kistner, Ziegert, Castro et al., 2001), 아동의 동기나 성취는 기질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일부 보고된 바 있다(이미리, 2020; 조희원·박성연·지연경, 2011; 최옥희·김용미, 2008; Bramlett, Scott, & Rowell, 2000). 다양한 기질 중 활동성이 높은 아동은 과제 지향성이 낮으며,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경우 숙달 지향적인 아동이 더 낮은 외향성을 나타낸다는 보고(Yazdkhasti & Harizuka, 2006)와 두려움이 큰 아동은 과잉규제를 하거나 새로운 환경을 회피하며 긍정적인 숙달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Rothbart & Jones, 1998). 선행연구와 같이, 아동의 기질이 과제의 실패 이후 반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질은 외부 환경과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기초가 되는데(Hetherington, Parke, Gauvain et al., 2006), 자극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민감성이나 새로운 문제를 경험할 때 보이는 적극성 혹은 회피 성향은 생물학적 접근 경향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Elliot & Thrash, 2002) 과제의 실패 이후 재도전 반응에서도 기질적인 개인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행동억제는 완전한 자기가 아닌 회상이나 기억에 의해 내면화된 양육자의 명령이나 지시에 순응하는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멈추거나 회피하려는 동기를 의미한다(최현혁, 2009). 이러한 행동억제는 자율적이고 내적 통제 가능성을 중시하는 자기조절능력의 하위 변인으로 구성되어(이정란, 2003) 주로 순기능에만 주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수동적 의미에서 통제의 개념이 더 크므로 자기조절과는 차이가 있다. 행동억제는 처벌이나 위협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심리적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Carver & Scheier, 2005)을 함으로써 정신 병리학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지만(Gilbert, Barch, & Luby, 2020), 도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에 관여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rker, Buzzell, & Fox, 2019). 즉, 선행연구에 의하면, 어린 시기에 관찰된 행동억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특징으로 하는 비교적 안정된 프로파일로, 불안의 위협 요인이 되며, 접근 및 회피 동기 시스템의 민감도를 증가시키고, 익숙하지 않거나 예측할 수 없는 자극과 환경의 맥락 안에서 접근 회피 동기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Niditch & Varela, 2018; Sandstrom, Uher, & Pavlova, 2020). 따라서 행동억제가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는 안정적인 특성으로, 유아가 실패 이후 재도전 과정에서 불안을 느끼고 도전을 위협요소로 인식하여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게 되면 과제에 대한 도전 지향적

성향을 기르고 긍정적인 발달을 이루는 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자기조절 능력 내에서 소극적 기능으로서가 아닌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중 하나로서 행동억제에 의한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유아는 경험과 사회적 관계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통제가능성이나 통제불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과제 재도전 반응의 행동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부드러운 지도 행동은 회피적 반응을 감소시키지만, 반대의 경우 1년 후에도 과제의 지속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으며(Kelley, Brownell, & Campbell, 2000), 또 다른 연구(Cole, Warren, Dallaire et al., 2007)에서도 냉정하고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따뜻하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도전 회피적인 과제 재도전 반응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애정을 철회하는 심리적 통제 양육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성인 중심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회피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며(장유진, 2016; Wang, Morgan, & Biringen, 2014), 어머니가 온정·격려와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전반적인 숙달 동기 수준이 높은 반면,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숙달 동기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보일 때 실패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길태영, 2017).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성취 의지를 촉진함으로써 재도전을 선택하도록 돕거나 성취 의지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회피 반응을 보이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비롯한 유아의 기질과 행동억제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에 관한 본 연구의 방향은 앞서 제기된 문제를 검증하여 국내·외에서 진행되었던 선행연구의 절차와 방법을 재현하고,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변인들을 추가하여 독립변인 간 차이와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시사하는 바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가 원하지 않는 구조적인 상황이나 학습에 대한 요구 및 성취압력이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아의 도전과 동기 발달에 대한 이해 및 바람직한 양육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기질, 행동억제 및 어머니 양육행동이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유아의 기질, 행동억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12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와 해당 유아의 어머니 202쌍이 참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 유아의 월령은 69~82개월( $M = 75.43$ ,  $SD = 4.74$ )로, 일반적 배경 특성을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112명(55.4%), 여아가 90명(44.6%)이었고, 출생순위는 첫째 또는 외동인 유아는 109명(54.0%), 둘째 이하인 유아는 93명(46.0%)으로 나타났다. 대상 유아의 어머니 연령은 30대 이하가 99명(49.0%), 40대 이상이 103명(51.0%)이었고, 어머니 교육수준은 2~3년제졸 이하가 92명(45.5%), 4년제졸 이상이 110명(54.5%)이었으며, 어머니 취업유무는 취업모가 116명(57.4%), 전업모가 86명(42.6%)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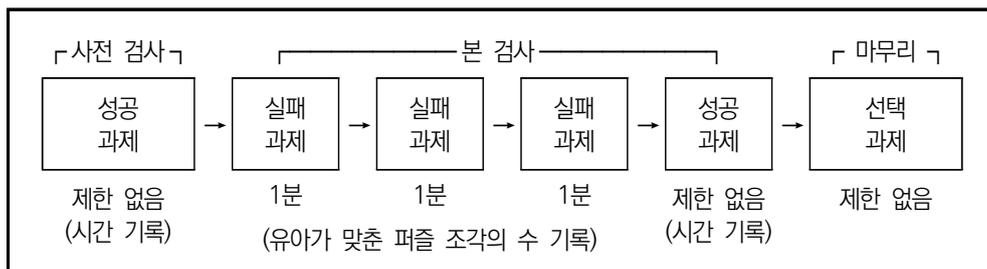
### 2. 연구절차

#### 가. 예비조사

본 연구에 앞서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 검사를 위한 퍼즐 과제 및 검사를 위한 도구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어머니를 위한 질문지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학 전공 교수 1인, 현장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 2인, 박사학위 소지자 2인에게 1차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 4, 5세 유아 14명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2019년 8월 2주~2019년 8월 3주까지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추출된 결과를 본조사 과정에 반영하였다. 유아 검사를 돕기 위한 보조 연구자는 현장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2인으로 선정하고 과제 재도전 반응 검사를 위한 과정과 문항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예비조사 과정에서 보조 연구자는 검사가 진행되는 같은 공간에서 시간 측정 및 유아의 반응 및 응답 방식 전체를 기록하고 채점하도록 훈련하였다. 한 명의 유아에 대한 검사가 종료될 때마다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가 기록한 결과를 확인하고, 보조 연구자가 검사의 일부를 진행하도록 하여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나. 본조사

본 조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9월 1주부터 11월 4주까지로 약 12주간 실시하였다. 연구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와 해당 어머니의 참여 여부에 대한 동의는 기관장이 직접 작성한 가정통신문 및 연구자의 별도 안내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협조를 구하였고, 267부의 질문지 중 총 224부가 회수되었다. 협의된 일정에 맞추어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가 기관으로 방문한 횟수는 한 기관당 1회에서 최대 4회까지로, 1일 8~12명의 유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질문지를 회신한 가정의 유아 최종 202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기관에서 제공한 장소(상담실, 강당, 교사실 등)에서 개별 유아당 약 25분 이내로 실시하였다.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 검사를 위한 전 과정은 사전 검사, 본 검사, 마무리의 3단계로, [그림 1]과 같이 진행되었다.



[그림 1] 과제 재도전 반응 검사 단계

사전 검사 단계에서 연구자는 유아가 스스로에 대해 지각하는 퍼즐 수행 능력에 대한 자기 가치를 그림을 보고 응답하도록 질문하였다. 유아에게 제공하는 퍼즐 1세트는 성공 가능한 퍼즐 과제로, 실패를 경험하기 전 유아의 퍼즐 과제 수행 능력, 즉 퍼즐을 완성하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간제한 조건 없이 진행되었다. 각 퍼즐 과제의 시작 전, 연구자는 완성된 퍼즐의 그림을 보여주어 유아가 어떤 주제의 퍼즐인지 인식하고 시작하도록 하였다. 본 검사 단계에서 3번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퍼즐 과제 각 세트에서 주어진 시간은 1분으로 제한하며,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퍼즐 과제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4세트의 퍼즐 과제 중 마지막 세트에서 제시되는 퍼즐 과제 1세트는 오류가 없는 성공 가능한 퍼즐을 제공하고, 시간제한 조건 없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아가 실패경험에 압도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네 번째 과제를 완성한 시간을 기록하며 측정을 위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였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유아가 본 검사 단계에서 경험

했던 4세트의 퍼즐 중 다시 한 번 도전하고 싶은 퍼즐이 있는지 질문하고 1세트의 퍼즐을 선택하여 맞추도록 하였다. 유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퍼즐을 선택한 경우, 유아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오류가 없는 완성 가능한 퍼즐 세트를 통해 성공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실패경험에 대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미 성공한 경험이 있었던 퍼즐을 선택한 경우에도 검사자는 유아의 선택을 존중하며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유아가 선택한 퍼즐 과제 종료 후 두 번째 목표지향을 한 번 더 측정하고 검사를 마무리하였다.

### 3. 연구도구

#### 가.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Smiley와 Dweck(1994)의 도구와 Kistner, Ziegert, Castro 등의 연구(2001)를 토대로 장유진(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와 점수 산출 양식을 이용하였다. 유아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과제는 유아에게 친숙한 동물 캐릭터가 그려진 종이 퍼즐 20조각으로, 사전 검사 단계에서 제시되는 퍼즐 1세트와 본 검사 단계의 마지막에 제시되는 퍼즐 1세트는 모든 조각이 맞는 완전한 퍼즐이며, 본 검사 단계의 나머지 퍼즐 3세트는 6개의 일부 조각들이 맞지 않도록 제공된다. 유아가 제한된 시간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1분 모래시계, 과제 이후 질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그림이 그려진 보조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은 퍼즐 과제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의 반응과 이후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측정한다.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은 능력귀인, 노력귀인, 첫 번째 목표지향, 두 번째 목표지향, 미래 수행 및 조건부 자기 가치에 대한 기대를 묻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응답한 내용에 따라 0~3점을 부여한다. 전체 점수는 0~18점으로 평정되는데, Kistner, Ziegert, Castro 등(2001)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검사방식은 유아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서적·인지적·행동적 반응을 평가할 수 있으며, 유아의 반응이 결합되어 종합 점수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재도전 지향과 재도전 회피를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체이며, 재도전 지향적인 반응이 많이 나타날수록 높은 도전 지향성을 가지며, 재도전 지향적인 반응이 적게 나타날수록 회피 지향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장유진, 2016).

능력 및 노력에 대한 귀인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질문을 받은 유아는 보조자료로 제시된 퍼즐의 완성 정도가 각기 다른 사진을 보고 자신의 귀인 여부를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능력귀인 또는 노력귀인 점수가 높은 것으로 평정한다. 조건부 자기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전 검사 단계 시작 전과 마무리 단계에서 별이 그려진 보조자료를 보고 응답하도록 하여, 조건부 자기 가치 점수로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목표지향을 측정하기 위해 다시 맞추고 싶은 퍼즐이 무엇인지 선택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질문하는 과정을 2회 실시하는데, 이러한 목표지향의 측정을 반복하는 것은 유아의 초기 능력을 고려하여 도전 성향을 측정하는 두 번째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목표 지향성에 대한 견고함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이다(Smiley & Dweck, 1994). 미래 수행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4세트의 퍼즐을 다시 받는다면 몇 세트의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지 묻고 퍼즐 세트의 개수가 많을수록 미래 수행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측정을 위한 질문 및 내용과 반응 결과 기록양식은 <표 1>과 같다.

<표 1>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 질문 및 내용과 반응 결과 기록양식

절차		질문 및 내용	유아 반응 결과				
사전 검사	실패 전 자기 가치	○○이는 평소 퍼즐을 별 몇 개만큼 잘한다고 생각해? 그림 중에서 골라볼래?	★	★★	★★★★	★★ ★★	★★ ★★★★
	연습과제	성공기능 퍼즐 1세트 수행	시간① ( )				
본 검사	퍼즐 4세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과제 3세트/ 성공 가능 퍼즐 과제 1세트 수행	실패1	실패2	실패3	성공4 시간② ( )	
	능력귀인	만약 지금 시간이 많다면 이 퍼즐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지 그림에서 골라볼래?	못 맞춤 0	1/3 1	2/3 2	완성 3	
	노력귀인	만약 네가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너는 이 퍼즐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까?	못 맞춤 0	1/3 1	2/3 2	완성 3	
	첫 번째 목표지향	4개의 퍼즐 중 다시 맞추고 싶은 퍼즐이 무엇이니? 왜 그 퍼즐을 선택했니? 이유:	재도전 회피 0	소극적 재도전 1	단순동기 재도전 2	성공 위한 재도전 3	
	미래 수행 기대	만약 네가 지금 시간이 많다면 너는 이 퍼즐 중에 풀 수 있는 퍼즐이 몇 세트나 있을까?	0~1 세트 0	2세트 1	3세트 2	4세트 3	
	실패 후 자기 가치	퍼즐을 해보니까 지금은 퍼즐을 별 몇 개만큼 잘한다고 생각해? 그림 중에서 골라볼래?	★	★★	★★★★	★★ ★★	★★ ★★★★
마무리	선택과제	성공기능 퍼즐 1세트 수행					
	두 번째 목표지향	4개의 퍼즐 중 다시 맞추고 싶은 퍼즐이 무엇이니? 왜 그 퍼즐을 선택했니? 이유:	재도전 회피 0	소극적 재도전 1	단순동기 재도전 2	성공 위한 재도전 3	
	조건부 자기 가치	실패 전 자기 가치 — 실패 후 자기 가치	3이상 감소 0	2감소 1	1감소 2	감소없음 3	

본 연구에서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가 각각 기록한 평정자 간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지 중 3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평정자 간 일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 나.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을 살펴보기 위해 Cloninger의 생물학적 이론을 토대로 구성된 미국의 Preschool TCI(Constantino, Cloninger, Clarke et al., 2002)를 수정·변안하여 제작한 한국판 만 3~6세 유아용 기질 및 성격 검사의 내용 중 홍혜란(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기질 검사도구를 이용하였고, 유아의 어머니가 평정하였다.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는 총 4가지 기질로 구분되는데, 자극추구 기질은 '쉽게 산만해진다.'와 같이 충동성, 자유분방 등을 측정하는 15개의 문항, 위험회피 기질은 '예견되지 않은 상황에선 불안해하는 편이다.'와 같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수줍음 등을 측정하는 16개의 문항,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많이 지지하고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와 같이 정서적 감수성, 의존적 성향 등을 측정하는 12개의 문항, 인내력 기질은 '잘 될 때까지 과제를 계속한다.'와 같이 지속력, 완벽함을 측정하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문항은 총 55문항이며, Likert식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 변인에 해당하는 기질 특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유아 기질에 대한 각 하위 변인의 신뢰도는 자극추구 .86, 위험회피 .88, 사회적 민감성 .82, 인내력 .86으로 나타났다.

#### 다. 유아의 행동억제

유아의 행동억제를 살펴보기 위해 이정란(2003)이 개발한 유아 자기조절능력 도구에서 행동억제 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하였으며, 유아의 어머니가 평정하였다. 유아의 행동억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는 '놀이를 하다가 다른 친구가 자기가 놀던 장난감을 빼앗으면 기분이 나쁘지만 양보하는 편이다.', '엄마가 바쁘다고 하면 자신의 요구사항을 지연시키는 편이다.'와 같이 자신의 욕구를 지연하고 행동을 억제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의 행동억제 검사 문항은 총 10개 문항이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는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유아 행동억제에 대한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 라.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박주희(2001)가 개발한 유아의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유아의 어머니가 평정하였다. 어머니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는 온정·격려, 한계설정, 과보호·허용, 거부·방임의 4가지 양육행동으로 구분된다. 온정·격려 양육행동은 ‘나는 아이가 실수를 해도 다음에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준다.’와 같이 유아의 자율성에 대한 칭찬, 격려를 나타내는 행동 11개의 문항,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나는 일상적인 일은 아이 스스로 하도록 한다.’와 같이 자녀를 존중하되 어느 정도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행동 8개의 문항,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은 ‘나는 야단치다가도 아이가 울면 중단하고 얼른 달래준다.’와 같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자녀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행동 7개의 문항, 거부·방임 양육행동은 ‘나는 아이가 고집을 부릴 때는 그 고집을 꺾고 결국 내 말을 듣게 만든다.’와 같이 자녀의 의견을 수용 없이 무시하거나 기피하는 행동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 양육행동 검사 문항은 총 3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높을수록 각 하위 변인에 해당하는 양육행동의 특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행동 각 하위 변인의 신뢰도는 온정·격려 .89, 한계설정 .87, 과보호·허용 .80, 거부·방임 .74로 나타났다.

####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유아 과제 재도전 반응의 차이 및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8.0을 통한 독립표본 *t* 검정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유아 과제 재도전 반응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 하위 변인(능력귀인, 노력귀인, 조건부 자기 가치, 목표지향, 미래 수행에 대한 기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유아의 성별과 관련하여 과제 재도전 반응 중 능력귀인에서 남아( $M = 2.45, SD = .66$ )가 여아( $M = 2.22, SD = .68$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 = 2.37, p < .05$ ),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관련하여 과제 재도전 반응 중 조건부 자기 가치에서 취업모의 유아( $M = 2.00, SD = .94$ )보다 전업모의 유아( $M = 2.38, SD = .86$ )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t = -2.81, p < .01$ ), 과제 재도전 반응 전체에서 취업모의 유아( $M = 2.12, SD = .39$ )보다 전업모의 유아( $M = 2.26, SD = .40$ )가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 = -2.48, p < .05$ ). 즉,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여아보다 능력귀인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취업모를 둔 유아보다 전업모를 둔 유아의 실패 이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가치를 유지하는 조건부 자기 가치가 더 높으며, 전체에서도 취업모를 둔 유아보다 전업모를 둔 유아의 도전 지향적 반응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과제 재도전 반응의 차이

( $N = 202$ )

구분		과제 재도전 반응					
		능력귀인	노력귀인	조건부 자기 가치	목표지향	미래수행 기대	전체
		<i>M(SD)</i>					
유아 성별	남아 ( $n = 112$ )	2.45(.66)	2.72(.54)	2.13(.89)	1.89(.87)	2.10(.91)	2.20(.40)
	여아 ( $n = 90$ )	2.22(.68)	2.73(.49)	2.12(.97)	1.89(.81)	1.92(.96)	2.13(.39)
	<i>t</i>	2.37*	-.14	.02	-.01	1.33	1.16
어머니 취업 유무	취업모 ( $n = 116$ )	2.31(.66)	2.76(.46)	2.00(.94)	1.83(.84)	2.00(.93)	2.12(.39)
	전업모 ( $n = 86$ )	2.43(.71)	2.66(.62)	2.38(.86)	2.03(.82)	2.06(.95)	2.26(.40)
	<i>t</i>	-1.22	1.25	-2.81**	-1.61	-.44	-2.48*

\* $p < .05$ , \*\* $p < .01$ .

## 2. 유아의 기질, 행동억제 및 어머니 양육행동이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에 대한 기질, 행동억제 및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유아의 성별과 어머니의 취업유무를 통제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VIF(분산 팽창 요인) 지수와 TOL(공차 한계)을 통해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VIF 지수는 10이하(1.42)로 나타났으며, 공차 한계는 0.1 이상(.60~.99)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선형회귀분석의 가정인 오차항의 독립성을 알아보기 위해 Durbin-Watson 지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일반적

기준인 1~3 사이에 있는 값(1.76)으로 확인되었고 잔차 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다. 각 독립변인의 투입순서는 유아는 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므로, 생물학적 가능성을 인식하여 개인차의 본질로서 기질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유아의 행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Kochanska, Murry, Jacques et al., 1996), 행동조절시스템 중의 하나인 행동억제가 자극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으로 생물학적 개인차를 나타낸다는 견해(오현숙, 2016)를 근거로 유아의 내적 변인인 기질과 행동억제를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외적 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투입하였다.

과제 재도전 반응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 = 5.38, p < .001$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 통제에 의한 설명력은 3%로, 어머니의 취업유무( $\beta = -.18, p < .05$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유아의 기질 변인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10%로, 어머니의 취업유무( $\beta = -.22, p < .01$ )와 위험회피( $\beta = -.27, p < .001$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유아의 행동억제 변인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9%로, 어머니의 취업유무( $\beta = -.26, p < .001$ ), 자극추구( $\beta = -.18, p < .05$ ), 위험회피( $\beta = -.26, p < .001$ ), 행동억제( $\beta = -.26, p < .001$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4단계에서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6%로, 어머니의 취업유무( $\beta = -.26, p < .001$ ), 자극추구( $\beta = -.16, p < .05$ ), 위험회피( $\beta = -.24, p < .001$ ), 행동억제( $\beta = -.24, p < .01$ ), 한계설정( $\beta = .14, p < .05$ ), 과보호·허용( $\beta = -.17, p < .05$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 전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취업유무, 유아의 위험회피와 자극추구 기질, 유아의 행동억제,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및 한계설정 양육행동으로, 총 25%의 설명력이 나타났다. 이는 자극추구 또는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유아의 행동억제 성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을 지향할수록 유아가 도전 회피적 반응을 보이며, 전업 어머니의 유아일수록, 한계설정 양육행동을 지향할수록 도전 지향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유아의 기질, 행동억제 및 어머니 양육행동이 과제 재도전 반응 전체에 미치는 영향  
( $N = 202$ )

독립변인		과제 재도전 반응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i>B</i>	$\beta$	<i>B</i>	$\beta$	<i>B</i>	$\beta$	<i>B</i>	$\beta$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성별 <sup>a</sup>	.07	.09	.10	.13	.07	.09	.08	.10
	모취업유무 <sup>b</sup>	-.15	-.18*	-.19	-.22**	-.22	-.26***	-.22	-.26***
유아 기질	자극추구			-.09	-.10	-.16	-.18*	-.15	-.16*
	위험회피			-.24	-.27***	-.22	-.26***	-.21	-.24***
	사회적민감성			.06	.06	.08	.08	.04	.04
	인내력			.02	.02	.02	.03	-.04	-.05
	행동억제					-.21	-.26***	-.19	-.24**
어머니 양육행 동	온정·격려							.09	.09
	한계설정							.10	.14*
	과보호·허용							-.13	-.17*
	거부·방임							.06	.07
<i>F</i> 값		2.68*		4.14***		5.60***		5.38***	
$R^2$ ( <i>adj. R</i> <sup>2</sup> )		.03(.02)		.13(.10)		.19(.16)		.25(.21)	
$R^2$ 변화량				.10		.09		.06	

a: 가변수(남아=1, 여아=0)

b: 가변수(취업모=1, 전업모=0)

\* $p < .05$ , \*\* $p < .01$ , \*\*\* $p < .001$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실패나 좌절 앞에서 재도전을 선택하거나 회피를 선택하는 유아들의 기질, 행동억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차이 및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유아의 성별,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능력귀인, 노력귀인, 조건부 자기 가치, 목표지향, 미래 수행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능력에 귀인하는 과제 재도전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남아에게 능력이나

성취에 대한 남성적 자극을 더 제공하고(임해미·한정아, 2016; Rodríguez, Regueiro, Piñeiro et al., 2020), 남아가 여아보다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불안이 적은 경향(Skočajić, Radosavljević, Okičić et al., 2020)으로 인해 기인되었음을 가정했을 때 유아를 대하는 사회나 성인이 성별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남아의 도전을 격려하고 자극하는 환경을 여아보다 더 제공함으로써 남아의 능력으로 귀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이러한 결과가 사실이라면 유아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성인인 부모나 교사가 노력에 귀인시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성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바로 잡는 것은 물론, 양성평등적 시각을 기르기 위한 놀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유념해야 할 사항은 본 연구에서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을 측정하는 하위 변인의 일부인 능력귀인에서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아의 높은 과제 지향적 특성을 보고한 선행연구(Brody, Scheiner, Ben Ari et al., 2020; Van der Aalsvoort, Lepola, Overtoom et al., 2015)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신중히 해석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실패 이후 재도전 반응에 관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고된 바 없으므로 유아의 성별에 따른 도전이나 회피 성향에 대한 더욱 확실한 근거와 차이를 발견할 때까지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취업한 어머니를 둔 유아보다 전업 어머니를 둔 유아가 실패 이후 자신의 능력에 대해 지각하는 조건부 자기 가치가 더 높으며, 과제 재도전 반응 전체에서도 취업한 어머니를 둔 유아보다 전업 어머니를 둔 유아의 도전 지향적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전업 어머니를 둔 유아가 취업한 어머니를 둔 유아보다 상대적으로 실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가치를 유지하여 과제 재도전 반응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는 본 연구에서 다른 변수는 아니지만, 선행연구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우, 자신의 취업이 자녀 발달에 부정적이라는 신념이 강하면 자녀 기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양육에 낮은 자신감을 보이게 된다(장영은·박선희, 2016)는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조건부 자기 가치에서의 내사가 자아관여의 형태로 드러나고(Ryan & Deci, 2000), 어머니의 특정 기대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장유진, 2016), 어머니의 이러한 신념이 성취에 대한 낮은 기대 혹은 결과에 대한 낮은 자신감과 연결되어 유아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는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통해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이미리·신유림, 2013), 취업모의 직무 스트레스는 취업모-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왕정희·송인한, 2012), 역할긴장시각에서 취업모는 자녀 양육과 일 사이에서 역할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 가정에서

자녀와 애정적 상호작용을 하기 어렵다(Crouter, Bumpus, Maquire et al., 1999)는 결과들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차이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전업모는 사회적 지지를 통한 정보 공유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통해 일상적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으므로 자녀와 정서적, 애정적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전업모는 방과 후 또래 모임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사회적 기술이나 놀이 전략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면서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자녀의 행동이나 요구에 더 높은 반응성을 보일 수 있다(김정희·문혁준, 2006; 서보배, 2018). 즉, 전업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유아를 편안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적절한 반응은 유아가 실패 상황에도 자기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확고한 가치를 갖는 데 도움을 주며, 과제 재도전 반응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단,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양육행동 간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가 많은 만큼,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과정이 간과되었으므로 속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에 대한 유아의 기질, 행동억제 및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극추구 또는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유아의 행동억제 성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을 지향할수록 유아가 도전 회피적 반응을 보이며, 전업 어머니의 유아일수록, 한계설정 양육행동을 지향할수록 도전 지향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도전 회피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유아의 기질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질 중 탐색적 흥분이나 자유분방 등의 자극추구 기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활동성이 높은 아동은 과제 지향성이 낮고, 더 낮은 외향성을 나타내는 아동이 숙달 지향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결과(Yazdkhasti & Harizuka, 2006)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위험회피 기질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같이 두려움이 큰 아동은 과도한 규제를 하거나 낮은 환경을 회피하며 숙달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Rothbart & Jones, 1998; Patel, 2008)과 관련이 있으며, 유아의 자극추구 또는 위험회피 기질은 숙달 동기 및 숙달의 즐거움과의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이미리, 2020)와 같은 맥락에서 유아의 자극추구 기질은 과제에 대한 지속성이나 흥미, 몰입도 등을 낮추어 실패 이후 과제에 대한 재도전 과정에도 재미를 느끼지 못하며, 유아의 위험회피 기질 또한 유아 스스로가 느끼는 예기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과제에 대한 도전 능력이나 접근성을 낮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아의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도전 회피적 반응이 높게 나타난 것은 행동억제 성향이 높은 아동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조차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보이고, 불안을 유발하는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활동을 억제하거나 회피하고 각성 수준이 증가 되며(최현희, 2009), 도전적이거나 목표 지향적인 행동과는 관련성이 적고, 불안의 핵심 요소를 반영한다(Barker, Buzzell, & Fox, 2019)는 연구결과와 연결해

볼 수 있다. 즉, 행동억제는 불안의 위험 요인이 되며, 익숙하지 않거나 성공을 예측할 수 없는 자극과 환경의 맥락 안에서 과제에 대한 접근 회피 동기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가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을 지향할수록 도전 회피적 반응이 나타난 것은 어머니의 과보호·허용적이고 침해적인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는 낮은 숙달 동기를 보인다는 연구(길태영, 2017; 이미리, 2020; Gonzalez & Wolters, 200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유아에게 바라는 행동을 매사에 관여하게 되면, 자녀의 독립심 발달을 저해하고 재도전을 위한 대처전략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되므로(Rubin, Chreah, & Fox, 2001) 따뜻한 관심을 유지하되 어머니의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도전 지향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전업 어머니의 유아일수록 도전 지향적 반응이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전업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정신적·시간적·재정적 지원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정미라·김경숙·이방실, 2013; 정혜림, 2018; Odenweller & Rittenour, 2017)을 예측할 수 있다. 전업 어머니가 자녀의 방과 후 또래 모임 등을 통해 사회적 기술이나 놀이 전략을 면밀히 관찰하며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자녀의 행동이나 요구에 더 높은 반응성(김정희·문혁준, 2006; 서보배, 2018)을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가 실패 이후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계설정 양육행동일수록 도전 지향적 반응이 나타난 것은 도전 목표를 지향하는 유아에게 정보적 피드백이 효과적이었던 연구(조혜림, 2016)나 한계설정이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유아의 숙달 동기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는 연구(길태영, 2017), 과제를 지속하는 인지 및 대상 지속성이 어머니의 체계화 지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이미리, 2020)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평소 유아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행동의 한계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유아의 선택이나 행동 앞에서 전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비계를 설정하며,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지를 하는 양육행동이 유아의 도전 지향적 반응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실패경험에 대한 대처 훈련을 제공하여 유아가 부정적 감정에 빠지지 않고 계획적인 행동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보적·전략적 피드백을 제시(김아영, 2010)함으로써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작용하여 유아의 도전 지향적 반응을 촉진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질적으로 활동성이 높아 자극을 추구하거나 위협한 상황에 불안을 느끼고 회피하는 기질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유아가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지 않도록 격려하면서도 유아를 관리·보호하기 위해 과도하게 통제하고

관여하는 양육행동을 하기 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심을 유지하되 도전이 가능한 놀이 상황 속에서 실패나 실수를 편안하게 경험하며 유아가 자율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도전을 반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실패경험 이후에도 전체 유아의 42%에 해당하는 유아가 퍼즐 과제 실패 이전과 이후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더 높게 평가하였는데, 조건부 자기 가치는 과제 재도전 반응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 나타난 원인으로 유아가 위협적인 정보나 스트레스 사건에 직면하였을 때 실제로 상당 부분 왜곡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인 자기고양편향이 나타났을 가능성(김유리, 2015)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유아 스스로가 성공적이었던 이전 경험을 이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자아를 방어하기 위해 자기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낙관성이 몇 세까지 출현하여 지속되는 반응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종단연구와 유아의 다양한 반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도 유사한 반응을 보인 유아를 그룹별로 모아 추가 관찰하거나 면접을 접목한 질적 연구로의 방향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 선정에 있어 어머니 변인만을 고려하였고 분석과정에서도 어머니를 둘러싼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단편적 요인만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 모두를 포함시키고, 분석에 있어서도 사회인구학적 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차이를 함께 다룸으로써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도전과 동기에 관련된 연구가 적은 실정에서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기질과 행동억제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유아의 기질적 차이를 이해하고, 유아 스스로가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여 두려움 없이 도전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논의 및 결론을 토대로 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의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과 어머니가 근무하는

직장의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통한 완충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관에서는 유아의 놀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구체적인 놀이 상황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도전이나 실패 상황에서의 유아 반응에 대한 정보를 가정과 공유하고 유아의 역량을 넓히기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는 가족친화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내 의무교육과 동시에,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와 같이 자유로운 재택근무의 활성화, 사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분소 설치를 통한 육아 상담과 교육 등 사업장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육아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의 개인적 기질과 성향, 어머니의 양육행동 등을 점검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로서의 검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유아의 발달과 성장,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관심이 수반되어 관련된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전문기관을 통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거나 인터넷에서 검증되지 않은 검사도구를 통해 약식 체크를 해보는 수준에 그치며, 그에 따른 해석이나 개별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아동에게 월령에 적합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등을 시기별로 받고 소속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같은 제도를 통해 아동은 건강과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발육상태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받으며, 가정에서는 자녀의 발달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전문가와의 간단한 면담을 통해 올바른 양육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녀가 발달함에 따라 표면적인 신체, 안전, 건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사를 반영한 검사를 선택하고 참여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녀 발달에 관한 정보와 양육방법을 아동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 기질을 이해하고 성격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위해 영아나 유아 단계, 초등학교 입학 직전 시기 등 시기별로 점검하며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러한 시도가 공공의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놀이 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유아와 놀이 중심의 교육은 자율성에 기초한 놀이를 장려함으로써 유아의 도전과 동기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현장에서는 실제 유아가 중심이 되는 자유로운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유아기 놀이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려는 다양한 형태의 부모참여와 교육이 뒷받침됨으로써 이를 장려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유아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에서 도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놀이를 풍부하게 경험하도록 하고 열린어린이집과 같이 개방적인 교실 운영, 부모의 놀이 참여 및 가정과의 소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놀이 지원자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안타깝게도 개정된 누리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해보려는 시도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이 반복되고, 완화된 상태에서조차도 전체 원아가 아닌 일부의 등원만이 허락되었으며 놀이를 통해 누리과정의 중요성과 효과를 알리려는 각 기관과 지자체를 통한 놀이체험 프로그램조차 계획과 취소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중요성과 효과를 알릴 수 있도록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방식의 새로운 접근과 시도를 통해 부모참여와 교육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각 가정의 놀이사례 공유, 부모 놀이 공동체 운영과 지원을 위한 실시간 화상 회의, 기관과 가정이 함께 쓰는 놀이일기 형식의 스마트폰 앱 개발과 운영 등 유아가 중심이 되어 놀이하면서도 부모가 함께 놀이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의 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가정에서 양육행동에 대해 점검하면서도 자녀의 기질과 성향을 이해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놀이를 통해 유아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적 자원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길태영(2017). 어머니의 교육신념이 유아의 숙달 동기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2010). 학업동기: 이론, 연구와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유리(2015). 기억과제에 대한 아동의 자기평가와 자신감, 과제흥미, 과제지속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정·안선희(2014). 유아의 동기 유형: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상호작용과의 관련성. 아동학회지, 35(4), 123-143.
- 김정희·문혁준(2006).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4(1), 115-129.
-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 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보배(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들의 자녀 사교육에 대한 인식 및 경험.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숙(2016). 누가 공부를 잘하고 누가 공부를 잘 못 하는가?: 학업성취와 관련된 지능, 기질 및 성격 특성에 관하여. *교육문화연구*, 22(1), 101-125.
- 왕정희·송인한(2012).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와 취업모의 직무스트레스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 *학교사회복지*, 23, 205-227.
- 이미리(2020).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숙달 동기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리·신유림(2013). 취업모와 비취업모 유아의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 기질, 환경적 지지의 효과. *육아정책연구*, 7(1), 1-20.
- 이정란(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해미·한정아(2016). 우리나라 싱가포르, 핀란드의 PISA 2012 수학에서의 성차에 대한 교육맥락변인 영향력 비교 분석. *대한수학교육학회지*, 26(2), 189-204.
- 장소진(2013). 목표 지향성과 부정적 피드백이 실패경험 후 아동의 성취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은·박선희(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신념과 역할만족도,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 *가족과 가족치료*, 24(40), 599-619.
- 장유진(2016). 어머니의 불안, 심리적 통제 양육과 성취관심이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에 미치는 영향-과제 수행 효능감의 매개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라·김경숙·이방실(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지원에 대한 질적연구. *유아교육연구*, 33(2), 163-189.
- 정혜림(2018). 집중적인 부모 양육태도, 신경증과 양육스트레스 관계에서 어머니 문단기의 매개효과: 전업모와 취업모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림(2016). 유아의 목표 지향성과 피드백 유형에 따른 성취동기 및 과제 수행의 차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원·박성연·지연경(2011). 아동의 기질 및 주장적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2(6), 15-32.
- 최옥희·김용미(2008).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과 학업성취 차이에 대한 연구. *아동교육*, 17(2), 275-285.
- 최현혁(2009). 체육수업행동의 활성화와 억제환경이 심리적 욕구와 자결성 동기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혜란(2008). 유아의 기질, 정서능력, 친사회적 행동발달 및 어머니의 친사회성과 관련된 양육신념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oca, D. D., Pasqua, S., & Suardi, S. (2015). Childcare, mothers' work and children's schooling outcomes. An analysis of Italian data. *Families And Societies Working Paper Series*, 30, 1-20.  
<http://www.familiesandsocieties.eu/wp-content/uploads/2015/02/WP30DeBocaEtAl2015.pdf>에서 2020년 4월 15일 인출.
- Barker, T. V., Buzzell, G. A., & Fox, N. A. (2019). Approach, avoidance, and the detection of conflict in the development of behavioral inhibition. *New Ideas in Psychology*, 53, 2-12. <https://doi.org/10.1016/j.newideapsych.2018.07.001>에서 2020년 2월 15일 인출.
- Bramlett, R. K., Scott, P., & Rowell, R. K. (2000). A comparison of temperament and social skills in predicting academic performance in first graders. *Special Services in the Schools*, 16(1-2), 147-158.
- Brody, D. L., Scheiner, E. Y., Ben Ari, M. D., Tzadok, Y., Van der Aalsvoort, G. M., & Lepola, J. (2020). Measuring motivation in preschool children: A comparison of Israeli, Dutch and Finnish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90(2), 150-160.
- Cain, K. M., & Dweck, C. S. (1995). The relation between motivational patterns and achievement cognitions through the elementary school years. *Merrill-Palmer Quarterly*, 41(1), 25-52.
- Carver, C. S., & Scheier, M. F. (2005). Engagement, disengagement, coping, and catastrophe. In A. J. Elliot & C. S. Dweck (Eds.), *Handbook of competence and motivation* (pp. 527-547).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 Cole, D. A., Warren, D. E., Dallaire, D. H., Lagrange, B., Travis, R., & Ciesla, J. A. (2007). Early predictors of helpless thoughts and behaviors in children: Developmental precursors to depressive cognitions.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2(2), 295-312.
- Constantino, J. N., Cloninger, C. R., Clarke, A. R., Hashemi, B., & Przybeck, T. (2002). Application of the seven-factor model of personality to early childhood. *Psychiatry Research*, 109(3), 229-243.
- Crouter, A. C., Bumpus, M. F., Maguire, M. C., & McHale, S. M. (1999). Linking parents' work pressure and adolescents' well being: Insights into dynamics in dual 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5(6), 1453-1461.
- Elliot, A. J., & Thrash, T. M. (2002). Approach-avoidance motivation in personality: Approach and avoidance temperaments and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5), 804-818.

- Gilbert, K., Barch, D. M., & Luby, J. L. (2020). The OverControl in Youth Checklist (OCYC): Behavioral and neural validation of a parent-report of child over control in early childhood.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51(1), 27-38.
- Gonzalez, A. L., & Wolters, C. A. (2006).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ing practices and achievement motivation in mathematics.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21(2), 203-217.
- Hetherington, E. M., Parke, R. D., Gauvain, M., & Locke, V. O. (2006). *Child psychology: A contemporary viewpoint*. NY: McGraw-Hill.
- Kamins, M. L., & Dweck, C. S. (1999). Person versus process praise and criticism: Implications for contingent self-worth and cop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5(3), 835-847.
- Kelley, S. A., Brownell, C. A., & Campbell, S. B. (2000). Mastery motivation and self-evaluative affect in toddlers: Longitudinal relations with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71(4), 1061-1071.
- Kistner, J. A., Ziegert, D. I., Castro, R., & Robertson, B. (2001). Helplessness in early childhood: Prediction of symptom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negative self-worth. *Merrill-Palmer Quarterly*, 47(3), 336-354.
- Kochanska, G., Murray, K., Jacques, T. Y., Koenig, A. L., & Vandegeest, K. A. (1996). Inhibitory control in young children and its role in emerging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7, 490-507.
- Lewis, M., & Ramsay, D. (2002). Cortisol response to embarrassment and shame. *Child Development*, 73(4), 1034-1045.
- Meece, J. L., Glienke, B. B., & Burg, S. (2006). Gender and motiva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4(5), 351-373.
- Niditch, L. A., & Varela, R. E. (2018). A longitudinal study of inhibited temperament, effortful control, gender, and anxiety in early childhood. *Child & Youth Care Forum: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in Children's Services*, 47(4), 463-479.
- Odenweller, K. G., & Rittenour, C. E. (2017). Stereotypes of stay-at-home and working mothers.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82(2), 57-22.
- Patel, D. M. (2008).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schooling on achievement motivation in first-grade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e Mason University, Fairfax, Virginia County, USA.

- Rodríguez, S., Regueiro, B., Piñeiro, I., Estévez, I., & Valle, A. (2020). Gender differences in mathematics motivation: Differential effects on performance in primary education. *Frontiers in Psychology, 10*, 3050. <https://doi.org/10.3389/fpsyg.2019.03050>에서 2020년 2월 27일 인출.
- Rothbart, M. K., & Jones, L. B. (1998). Temperament, self-regulation, and education. *School Psychology Review, 27*(4), 479-491.
- Rubin, K. H., Chreah, C. S., & Fox, N. (2001).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and display of social reticence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1), 97-115.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Sandstrom, A., Uher, R., & Pavlova, B. (2020). Prospective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8*(1), 57-66.
- Seligman, M. E. (2008). 학습된 낙관주의. (최호영 역). 경기: Book21. (원서출판 2006).
- Skočajić, M. M., Radosavljević, J. G., Okičić, M. G., Janković, I. O., & Žeželj, I. L. (2020). Boys just don't! gender stereotyping and sanctioning of counter-stereotypical behavior in preschoolers. *Sex Roles, 82*(3-4), 163-172.
- Smiley, P. A., & Dweck, C. S.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achievement goals among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5*(6), 1723-1743.
- Stipek, D., Recchia, S., McClintic, S., & Lewis, M. (1992). Self-evaluation in young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7*(1), 1-95.
- Van der Aalsvoort, G. M., Lepola, J., Overtom, L., & Laitinen, S. (2015). Motivation of young students: A cross-cultural evaluation of a model for motivational orientations. *Research Papers in Education, 30*(1), 114-131.
- Wang, J., Morgan, G. A., & Biringen, Z. (2014). Mother-toddler affect exchanges and children's mastery behaviours during preschool year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3*(2), 139-152.
- Yazdkhasti, F., & Harizuka, S. (2006).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perceived maternal rejection on childhood anxiety and behaviour problem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7*(1), 105-128.
- Ziegert, D. I., Kistner, J. A., Castro, R., & Robertson, B. (2001). Longitudinal

study of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challenging achievement situations.  
*Child Development*, 72(2), 609-624.

- 논문접수 11월 4일 / 수정본 접수 12월 9일 / 게재 승인 12월 17일
- 교신저자: 문혁준,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mhyukj@catholic.ac.kr

## Abstract

### The Effect of Child's Temperament, Behavioral Inhibition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on the Response to a Child's Task Rechallenge

Yunhee Jang and Hyukjun Moon

This study is based on the task retake response of infants as a major factor. The response to task rechallenge was individually conducted on 202 pairs of 5-year-old children, an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collect data related to the child's temperament, behavior control, and the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 Technical statistics, independent sample t-tes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were conducted to identify differences and influences among key variables. Studies have confirmed that some temperament and behavioral inhibitions in children and their mother's parenting behavior affect the child's challenge-oriented or challenge-avoidant response.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support a child's challenge and motivation through compassionate parenting. This encourages mothers to understand their child's temperament without over controlling her behavior to avoid additional challenges, set limits, and continue to experi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olicies such as various parent participation programs are proposed to prepare an inspection system as a public service and promote play between mother and child.

Keywords: temperament, behavioral inhibition, mother's parenting behavior, child's response to task rechallenge

